

한중일 정상회담(09.10.10) 주요내용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한중일 3국 협력 1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향 모색 및 북핵 문제 등에 관해 의견교환을 했다.

□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총리가 참석
-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들은 3국 협력 1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
- *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어 왔으며, 작년 12월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내에서도 별도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시작, 이에 따라 2010년 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

□ 협의 내용

- FTA와 관련하여 제1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를 내년 상반기 중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하기로 합의
- 함께 배석한 장관들에게도 필요할 때마다 발언권을 주거나 대신 답변하게 하는 파격적인 장면을 확인, 특히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한중일 FTA 체결 협의를 제안하자 관계 장관에게 대신 답변토록 하면서 찬성 입장을 피력

- * 한중일은 2002년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올해까지 3국 연구기관을 통해 FTA 공동연구를 진행, 이들 연구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간 협의 단계로 격상할 것을 권고하였음
- 3국의 경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사업환경 투명성을 제고하는 ‘비즈니스 환경 액션 어젠다’를 적극 이행하기로 합의
 - 3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을 가속화해 내년 초에 마무리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하천 관리 및 수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춰 조만간 수자원 관련 장관협의체 설치 합의
 - 3R(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정신에 기반을 둔 3국 순환경제 모델 기지 구축을 모색, 농업분야 3자 협의체를 도모
- 2010년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제4차 3국 외교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2010.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
 - 특히 G20회의 틀을 적극 활용해 보호무역주의 반대, 도하개발 아젠다(DDA)협상 타결 등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무대에서 3국의 공동보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
- 북 비핵화를 포함,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도 적극 협력 합의
 - 3국 정상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협력 합의,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강한 의지 확인
- * 중국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 일괄타결)’ 을 중국식으로 ‘대교역(大交易)’ 이란 용어로 부를 만큼 많은 관심

□ 성과

- 유엔총회 및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주요 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한·중·일 3국간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3국이 FTA를 위해 의견상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지만 FTA 체결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실제 협상 개시는 물론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

<참고자료>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한국일보 2009.10.25), 한·중·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전문(연합뉴스 2009.10.11) 등 국내 주요언론보도 종합